

담화와 인지, 제20권 1호, 2013년

## 구어체 어말어미 ‘-거든’과 ‘-더라’의 담화기능\*

김 명 희

(한양대학교, ERICA)

**Kim, Myung-Hee. 2013. Discourse functions of *-ketun* and *-tela* in spoken Korean. *Discourse and Cognition* 20:1, 27-51.**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scourse functions of sentence-ending suffixes *-ketun* and *-tela* by looking at their interaction in modern spoken Korean. The data consists of 10 narrative corpora, collected in 2001 as part of ‘the Seoul Dialect Projec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nd 91 spoken corpora, made public by ‘the 21st Century Sejong Project.’ The narrative corpora include 10 middle-aged speakers from the Seoul region talking about their childhood. The spoken corpora include 40 monologues, 35 everyday conversations, five telephone conversations, and 11 thematic discuss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ketun* and *-tela* sequences are usually used by a single speaker, and the *-ketun* to *-tela* sequence is more common than the other way around. A close examination of *-ketun* to *-tela* sequences shows that *-ketun* marks the background or setting for what the speaker is trying to say, which is marked by the following *-tela*. On the other hand, *-tela* to *-ketun* sequences show that *-tela* marks the speaker’s observation, which is followed by *-ketun* marking its cause or reason. It seems that *-tela* usually marks the speaker’s focus because of the unexpectedness or surprise element in its inherent meaning. Overall, it seem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ose by previous studies on them by examining their interaction in spoken discourse. (Hanyang University, ERICA)

**Key words:** *-ketun*, *-tela*, sentence-ending suffix, Korean, spoken corpus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218). 유익한 논평과 제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 서론

우리는 발화 중에 끊임없이 발화 내용, 발화 상황 그리고 청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믿음을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드러내게 된다. 국어의 어말어미는 이러한 화자의 태도/시각 등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든’과 ‘-더라’는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어미로 알려져 있다. 흔히 ‘-거든’은 ‘화자 영역의 정보’를, ‘-더라’는 ‘화자의 과거 시각 정보’를 표지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는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포함한 발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가정 혹은 전제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들 의미 범주를 담화 상에서 역동적이며 미묘하게 활용함으로써,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화자 자신 및 청자의 시각/태도 등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거든’과 ‘-더라’ 개별어미에 대한 선행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제 담화 상에서의 기능은 여전히 밝힐 부분이 많으며, 이들이 담화 상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개별어미에 대한 더 많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에 있다. ‘-거든’과 ‘-더라’는 각각의 개별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화 상에서 연속으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교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아래 (1)의 예를 살펴보자.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두 어미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그 중 먼저 나오는 어미가 실제 대화에서 사용된 것이다. 두 어미가 상호 교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나머지 어미도 함께 제시하였다.

### (1) 주제\_이라크전쟁과 한반도 (400-411)

- 1 A: 그런:: 어쨌거나 그~ 이- 인제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2 전쟁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면 안, 난 안 될 거 같거든/더라?  
 지금 뭐~ 씨리아 또 친다 뭐~ 이런 말 하잖아,  
 3 B: 응,  
 4 A: W왜 왜 왜W 마찬가지로진데::,  
 5 B: 옛날 옛날에 그런 그런 뉴스를 봤는데,  
 6 이라크 전쟁 막 초읽기 들어갔을 때,  
 →7 일본에 있던 우리나라 합작 회사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갔거든/  
더라?  
 8 우리나라에 있던 게 다 그렇게 갔어,  
 9 근데 그::~~,

- 10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11 생각하는 게 우리 나라 사람이 제일 없더라고/거든.

(1)의 예에서 화자는 이라크 전쟁 후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합작회사들의 행보를 ‘-거든’ → ‘-거든’ → ‘-더라’의 순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이들은 짧은 담화 안에서도 역동적이며 다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에서의 교환 가능성을 보면, 개별 어미에 대한 의미만으로는 이들이 담화 상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말어미인 ‘-거든’과 ‘-더라’가 (a) 현대 국어의 일상 대화 및 내러티브 등의 담화 상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b) 이들의 양태 기능이 대화자들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현대 구어의 대화 및 내러티브 코퍼스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말어미 ‘-거든’과 ‘-더라’는 현대 구어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어말어미이다. 서상규·구현정(2005:103-104)에 따르면, ‘-거든’과 ‘-더라’ 둘 다 문어 텍스트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주로 ‘안높임’체의 구어 대화 코퍼스에서 ‘-거든’이 1.46%, ‘-더라’가 0.70%의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종결어미이다.<sup>1)</sup> 또한, 권재일(2004)의 구어 자료에 의하면, ‘-거든’은 모든 어말어미 중 5.95%로 ‘-어’, ‘-지’, ‘-는데’에 이어 많이 나타나며, ‘-더라’도 ‘-다’와 합친 통계이지만, 4.99%로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어말어미를 알 수 있다. 신지연(2000)에서는 구어 코퍼스 자료를 통해 ‘-거든’이 평서문에서 ‘-어’에 이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어말어미로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각 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 2.1. ‘-거든’에 대한 선행연구

‘-거든’은 역사적으로 가장 원형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였던 조건표지 연결어미였다. 하지만,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현대 구어체에서 조건표지 기능은 ‘-으면’으로 이동하고, ‘-거든’은 연결어미가 아닌 어말어미로서 새로

1) 서상규·구현정(2005)에 의하면, 현대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말어미는 ‘-어(13.02%)’이며 그 뒤를 ‘-야(10.17%)’, ‘-지(7.78%)’, ‘-잖아(6.42%)’가 따르고 있다.

운 담화적 기능을 얻게 되었다(구현정·이성하 2001).<sup>2)</sup>

‘-거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자가 모르고 있을 내용을 가르쳐 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리고 ‘앞으로 할 어떤 이야기의 전제로 베풀어 놓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말하는 이가 나름대로 생각한 까닭이나 이유를 밝히는 뜻’ 그리고 ‘(올림 억양의 경우) 어떤 사실의 전제로 기능하게 하여 이 다음 내용은 이를 조건으로 받아 전개됨을 나타냄’이라 하였다.

‘-거든’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일인칭 주어 및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 데이터에서 ‘-거든’의 분포를 살펴본 타이라(2006)는 ‘-거든’의 주어가 화자 혹은 제3인칭인 경우가 많으며, 형용사, 계사보다는 동사와 공기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주어가 화자이고 동사와 공기한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비과거형과 과거형 사이에 빈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거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영근(1976/1989: 320)은 “화자가 문장을 감탄적으로 강조하면서 끝맺는 어미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화자 자신이 감탄함에 그칠 따름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김정대(1983)는 중세어에서 접속어미로만 쓰인 것이 통사화가 진행되어 ‘전제없는 단순한 서술’을 뜻하는 어말어미로 전용되었으며, 서술 ‘이다’와 그 의미가 같다고 하였다. 서태룡(1988: 190)은 청자가 지각할 수 없는 화자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의 의미를 청자의 [미지각]으로 보았다. 또한, 고창운(1995: 139)은 ‘말할이가 월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거든’의 의미 특성의 하나를 ‘사실성 인식’이라 하였으며, 또한, ‘말할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들을이는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철(2004: 244)은 ‘이미 실현된 또는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실’이라 하여 ‘강한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거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거든’의 기본 의미는 ‘이미 화자에게 내면화된 확실한 정보를 청자는 아직 모르고 있다고

2) ‘-거든(요)’는 ‘-어(요)’, ‘-지(요)’, ‘-군(요)’, ‘-고(요)’, ‘-네(요)’ 등과 함께 ‘반말체 종결어미(박재연 2006: 92)’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박재연(1998)은 이들이 ‘본래 종결어미가 아닌던 형식이 온전하게 종결되지 못한 문장, 즉 반말에 사용되면서 종결어미로 굳어진 것들’이라고 하였다. 장경현(2010)은 반말체는 다른 문체의 형식들이 대신할 수 없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다른 문체와 서로 보완적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가정하는 의미(박재연 2006: 236) 혹은 ‘화자 영역에 속한 정보를 제공(신지연 2000: 256)’하는 기능을 하며(Kamio (1995, 1997) 참조), 담화 상에서는 앞뒤 담화에 대한 전제 혹은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채영희(1998: 8-16)는 ‘-거든’이 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여, 화자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쓰이며, 흔히 화자 자신의 발화 동기를 밝히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담화서법표지(discourse modality marker)라고 하였다.

다른 어말어미와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해영(1996: 104)은 ‘-는데’는 단순히 그 상황을 설명적으로 제시하는데 반해, ‘-거든’은 화자가 상황을 공유 정보화시킴으로써 화자의 발화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대한 변명거리를 미리 제공하는 ‘부담 줄이기’의 기능을 하는 어말어미라고 하였다. 반면, 박재연(1998)은 ‘-잖’이 청자가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쓰이는 데 반해, ‘-거든’은 청자가 전혀 모르는 정보를 새로 알려 준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형태에 비해, ‘-어’는 무표적이라고 하였다.

‘-거든’이 실제 담화 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극히 극소수이다. 앞뒤의 문맥을 제시한 연구들도 실제의 예가 아닌 연구자가 만들어낸 예가 대부분이다. ‘-거든’을 앞 뒤 문맥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 기능을 ‘전제 혹은 원인/이유’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길(1991: 101-106)은 ‘-거든’이 종결 접미사이지만, 의미상 뒤에 발화가 계속되며, (2)의 예에서와 같이 전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2) 내 등록금 훔쳐가는걸 붙잡았거든, 그랬더니 이게 내코를 치잖아.  
(연세한국어사전)

인터넷 블로그 상의 실제 텍스트를 살펴본 장경현(2010)은 ‘-거든(요)’의 용법을 ‘선행 주장 및 판단의 근거’와 ‘후행 발화의 배경’의 두 가지로 보았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3) 사실, 프리랜서를 가장한 백수 생활도 나쁘진 않았어요. 돈 있는 백수가 최고!!라는 말처럼, 일거리만 많이 들어온다면 프리랜서도 할 만하죠. 번역같은 것도, 대중 사나흘 빠질대며 방구석에 처박혀 번역 해내면 50만원 정도 손에 쥐거든요. (장경현 2010: 197)
- (4) ... 안 그래도 지금 지구과학 계열의 책 번역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리학 배경이라 몇몇 용어에서 좀 막히더라구요.... (장경현

2010: 198)

예 (3)의 ‘-거든’은 선행 담화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4)에서는 후행 발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입부로서 뒤에 나오는 자신의 주장이나 경험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배경으로 쓰이고 있다(199).<sup>3)</sup> 장경현(2010)은 결론적으로 ‘-거든’의 기능이 선행 발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다른 반말체 어미들이 ‘-다’체나 ‘-디니다’체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거든’은 다른 반말체 어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흥미로운 지적을 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구 결과들을 뒤집는 반증의 예도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에서 ‘-거든’이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한 전제 또는 배경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5)-(6)의 예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 하다.

- (5) 근데 막 저는 집에 누가 오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독백\_연애담과 신혼여행기)
- (6) 큰스님이 인제 아흔셋이거든요, 정정하세요. (자연발화)

(5)와 (6)의 ‘-거든’은 앞의 문장에 쓰였으나, 전제가 아닌 ‘결과’ 및 ‘양보’를 각각 나타내는 듯하다. 이러한 반증의 예는 더욱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 2.2. ‘-더라’에 대한 선행연구

어말어미 ‘-더라’의 ‘-더-’는 역사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과거 비완료’ 표지였으나, 17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과거시제 형식인 ‘-았’이 등장하면서 ‘-더-’는 과거 시제 표지기능을 잃고 양태표지로 발전하게 되었다(최동주 1996). 지금까지 어말어미에 나타나는 ‘-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sup>4)</sup> 이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박재연 2006). 첫째는 시제 혹은 상(aspect)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초기 연구들로, 최현배(1937/1955)의 ‘도로 생각 때때김’, 임홍빈(1982) 등의 ‘회상시제’, 나진석(1971)의 ‘기억의 재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상·양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서, 최동주(1994: 219)는

3) 박재연(2006)도 ‘-거든’의 담화 기능을 ‘이어질 뒤 문장의 전제 혹은 배경’과 ‘앞 문장에 대한 이유’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4) 1982년 이전의 선행연구는 임홍빈(1982)에 잘 정리되어 있다.

‘-더.’의 의미가 ‘화자의 시각을 화자가 그 사건을 경험하는 현장의 틀 안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이효상(1995)은 ‘-더’를 화자의 시점을 기술되는 상황의 사건 틀 안에 위치시키는 비완료상이라고 주장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효상은 ‘-더’의 경험의 증거 양태적 속성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의 양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회상의 의미 외에 ‘보고(서정수 1977)’, ‘새로 읽(김차균 1980)’, ‘무책임성(김영희 1981)’, ‘단절(임홍빈 1982)’, ‘과거지각(장경희 1985)’, ‘거리(신현숙 1986)’ 등을 ‘-더.’의 의미로 설정하고 있다. 서태룡(1988)은 ‘-더.’의 의미를 발화시 이전 인 [과거지각]을 발화시에 다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감각 행위를 통한 경험을 지칭할 수 있다.

- (7) 가.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시더라. (서정수 1996: 270)  
 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더라. (박재연 2006: 156)

(7가)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비문이지만, (7나)은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이므로 비문이 아니다.

둘째, 더 나아가 그 지각의 시점은 과거이며, 그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것을 표지한다. Strauss (2005)는 ‘-군’ ‘-네’와 함께 ‘-더라’를 mirative marker(Slobin and Aksu 1982; DeLancey 2001)로 보고, ‘-군’ ‘-네’가 발화 시점에 인지한 사실을 표지하는 반면 ‘-더라’는 발화 시점 전에 인지한 사실을 표지한다고 하였다.

- (8) 내일부터 고속버스 요금이 오르더라.

(8)의 예문은 미래 상황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이를 지각한 시점은 과거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 전까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임도 알 수 있다.

셋째, ‘-더’는 어떠한 상황을 새롭게 인지하게 된 사실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으로 부터 거리를 두고, 나아가 화자의 ‘책임성 결여(신현숙 1980)’ 혹은 ‘신빙성 결여(김영희 1981)’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9) A: 어젯밤 순희가 숙제를 했니?

- B: 안하고 그냥 잤어요.  
 B': 안하고 그냥 자더라구요.

(9)에서 (B)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라면, (B')는 자신이 인지하게 된 것을 언급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의 객관화 (objectification), 더 나아가 책임 회피(non-committal, Lee 1993) 혹은 ‘거리 두기(distancing)’의 기능을 하는 듯하다.

넷째, ‘-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동일 주어 제약’이다. 위의 특징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에 관한 것을 새롭게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0) ㄱ. 철수가 밥을 먹더라.  
 ㄴ. ?내가 아침에 밥을 먹더라.

- (11) 나는 결혼을 하니 행복하더라.

(10ㄱ)의 문장은 문제가 없지만, (10ㄴ)의 경우에는 적절한 문맥이 주어질 경우에만 비문이 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평소에 아침밥을 먹지 않던 화자가, 어떤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은 후에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아침에 밥을 먹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1)의 경우와 같이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비동일 주어 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의미 접근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Song(2002)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들 연구들이 ‘화자의 과거 지각 정보’ 혹은 ‘회상 시제’라는 의미 분석이 일인칭 제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래 (12)의 예와 같이, ‘-더라’가 과거가 아닌 현재 혹은 미래 상황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12) ㄱ. 철수가 이제 학교에 다니더라.  
 ㄴ. 내년부터 기름 값이 오르더라. (Song 2002: 153)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거든’은 청자가 알지 못하는 화자 영역의 정보 제공이 기본 의미이며, 주로 일인칭 주어와 동사와 공기하여 과거의 사실을 언급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라’ 역시 청자가 모른다는 전제 하에 화자가 과거에 새롭게 지각한 과거의 경험 제공



이 그 기본 의미로서 주로 일인칭 주어와는 함께 쓰이지 않으나(‘비동일 주어 제약’), 화자의 심리적/생리적 현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인칭 주어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는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포함한 발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가정 혹은 전제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들 의미 범주를 담화 상에서 역동적이며 미묘하게 활용함으로써,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화자 자신 및 청자의 시각/태도 등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국어 어말어미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a) 하나의 어미만을 대상으로 (b) 문장 단위의 예를 중심으로 (c) 통사/의미론적인 접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각 어말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는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하나의 어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어미와의 상대적인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 둘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 단위의 예가 대부분이며, 자연 발화도 문맥없이 문장 단위의 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문장 단위의 통사적/의미론적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각 어말어미의 기본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는 공헌하였으나 이들이 자연 발화에서 화자의 어떠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화자는 이들의 기능을 어떻게 담화 상에서 역동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밝히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화 상에서 두 어미가 화자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서로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공개한 독백과 대화체를 포함한 현대구어체 306,093어절과 서울 토박이 자료집 4에 나오는 인터뷰 형식의 내러티브 19,151어절 등 총 삼십만 어절이 넘는 말뭉치이다. 세종계획에서 공개한 구어체 말뭉치는 40개의 독백, 35개의 일상대화, 5개의 전화대화, 11개의 주제대화 등 91개의 텍스트를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이며, 평균 화자의 수는 2.92명으로, 대부분의 화자들은 20대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내러티브 자료는 50-60대의 10명의 화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옛 서울과 어린 시절에 대해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화 및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a) 어말어미의 대화 순서 맥락 안에서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 전략으로서의 기능과 (b) 화자의 과거경험이 주된 주제인 내

러티브에서의 효과적인 담화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 단계로 각 코퍼스에 나온 모든 ‘-거든’과 ‘-더라’를 추출하였다.<sup>5)</sup> 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코퍼스에서의 ‘-거든’과 ‘-더라’의 분포

	총어절수	‘-거든’	‘-더라’
구어 코퍼스	306,093	1054 (0.34%)	882 (0.29%)
내러티브 코퍼스	19,151	76 (0.40%)	44 (0.23%)
합 계	325,244	1130 (0.35%)	926 (0.28%)

<표 1>의 결과를 보면 구어 코퍼스와 내러티브 두 코퍼스 모두에서 ‘-거든’이 ‘-더라’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거든’과 ‘-더라’의 어미가 서로 인접하여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추출하였다. 많은 경우, (13)-(14)의 예와 같이 같은 어말 어미를 연속하여 쓰는 경우도 많았다.<sup>6)</sup>

(13) 주제\_이야기 만들기 (144-153)

- 1 A: 키 키 죽어도 안 줘요,
- 2 저~ 차 빨라면 키 있어야 되는데요.
- 3 =했더니 죽어도 안 줘.
- 4 있다 연락해요::, 그러더라.
- 5 꽃아 놓고 가고,
- 6 야~ 근데 확실히 조폭들이, <pause 2.5>
- 7 일만 딱 하고 가더라::,
- 8 =와서 인사하고 부조금 내고 밥만 먹고 딱 빨리 빨리
- 9 빠지더라,

5) ‘-거든’은 ‘-거던’과 ‘-그든’, ‘-더라’는 ‘-드라’의 이형태도 함께 추출하였다. ‘-거든’은 ‘-요’가, ‘-더라’는 ‘-구요’의 존칭어미가 더해지기도 하였다.

6) 같은 어말어미를 연속하여 쓰는 것은 활성화과정이론(spreading activati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Anderson (1983)에 의하면, 활성화된 정보는 흥분 혹은 기준점 감소를 가져 오게 되므로, 추후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 발화에서는 같은 형태의 어형이 계속 쓰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Bock 1986; Levelt and Kelter 1982; Weiner and Labov 1983).

(14)

- 1 A: 다 따로 따로 거든?  
 2 B: 어,  
 3 A: 다른 사람이 내 실험에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  
 → 4 그니까 내 실험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실험이거든?  
 5 =그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고,  
 → 6 뭐라고 하는 것도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  
 7 그러니까 아:!, 너무 그래.

한편, ‘-거든’과 ‘-더라’가 인접하여 쓰인 경우는 모두 43건이 있었다. 그 중 ‘-거든’ -> ‘-더라’의 순서로 일어난 경우가 26건, ‘-더라’ -> ‘-거든’로 끝난 경우가 17건이 있어서,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sup>7)</sup> 다음은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 4. 연구결과

분류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가 구어 대화체와 내러티브이지만, ‘-거든’과 ‘-더라’의 연속체는 대화자 간보다는 한 화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한 화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두 어미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자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일상\_삼십대 (1299-1302)

- 1 A: 잘 뻐다.  
 → 2 나도 다 사육으로 뻐거든요,  
 → 3 B: 어유 나 큰 사진 싫더라 근데 요즘에,  
 4 옛날 그 작은 사진이 좋지.

(15)의 예에서는 화자 A와 상반된 자신의 생각을 화자 B가 ‘-더라’를 사용하여 답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예들은 모두 한 화자에 의해 단독으로 발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와 내러티브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한다.

7) 물론 이 숫자는 매우 임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거든’과 ‘-더라’가 같이 일어나서 분류의 어려움도 있었다. 숫자는 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두 종결어미가 반드시 바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화자는 ‘-거든’으로 배경이나 전제를 밝힌 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전개를 하여 ‘-더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그 예이다.

(16) 일상\_운전면허에 대해 (1012-1019)

- 1 A: 내 친구는 딱 끝까지 몰구 왔다가.  
 → 2 내 친구가 먼저 시험을 봤거든,  
 3 그래서 <laughing>붙은 지 알았더니<laughing> 좀 더 연  
 4 습해야 <trunc>되겠</trunc> 연습하구 오셔야 되겠네요  
 5 이러더니.  
 6 나는 딱 저거드니 어우 축하한다구,  
 7 도로에 가서는 더 잘 하시라구.  
 8 B: 어.  
 → 9 A: 딱 주더라구.  
 10 아 웃으면서 딱 내려 주구.

(16)에서 화자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친구와 달리 시험에 쉽게 통과한 것을 비교하고 있다. 친구가 먼저 시험을 본 것을 ‘-거든’을 사용하여 배경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상반되는 결과를 설명한 후에 ‘-더라’를 사용하고 마무리 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거든’으로 시작해서 ‘-더라’ 연결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다. ‘-더라’에서 ‘-거든’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거든’이 앞의 ‘-더라’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개의 시작이 되는 등 앞의 ‘-더라’와 흐름 상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는 본 연구의 예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거든’ -> ‘-더라’와 ‘-더라’ -> ‘-거든’의 순의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4.1. ‘-거든’ -> ‘-더라’

먼저 ‘-거든’ -> ‘-더라’의 순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거든’은 뒤에 나올 화자의 경험이나 주장에 대한 배경이나 전제 정보를 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뒤따르는 ‘-더라’는 그에 따른 후행 경험이나 화자의 주장 혹은 내적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때, ‘-더라’는 발화 시점 이전에 새롭게 인지한 사실이라는 본래의 의미 때문에 많은 경우 의외성(unexpectedness), 놀라움(surprise) 등의 의미

를 내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거든’와 ‘-더라’가 서로 상반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더라’가 앞의 ‘-거든’에 따른 결과를 담은 순접적인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그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 4.1.1. 대조 정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는, ‘-거든’으로 전제가 되는 정보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제시한 후, ‘-더라’는 그와 상반된 사실이나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아래 (17)의 예는 화자가 일본 여행길에 본 도꾸헨지라는 가게를 다른 가게들과 비교하고 있다.

##### (17) 독백\_일본여행기(00357-00366)

- 1 그런 중간에 도꾸<pause>헨진가?
- 2 도꾸헨지라는 곳에 갔어,
- 3 거기서두 음~ 거기서 되게 재밌었어,=
- 5 =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되게 상품으로 해 놓 거를 보
- 6 고서,
- 7 음~ 그리구선 그리구 이케 내가 다른 상점가 같은 텔 갔을 때는,
- 8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
- 9 되게 백 엔 샵 이런 데만 이렇게 썩 곳만 되게 사람이 많고,
- 10 다른 데는 사람들이 없었어,
- 11 소비 침체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 12 거긴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17)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다른 가게들의 모습을 ‘-거든’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와 비교하여 붐비는 도꾸헨지의 모습을 ‘-더라’로 표현하고 있다. 비교 대상은 이처럼 동시대일 수도 있지만, 다음 (18)의 예처럼 시간대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 (18) 독백

- 1 대신 엄마한테 그랬었거든.
- 2 근까 군대 갔다와서는 내가 다 한다구.
- 3 아르바이트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 4 신경 쓰지 말라구 그랬는데.
- 5 아무리 아르바이트해두 안 되드라 진짜.

(18)에서 화자는 ‘-거든’과 ‘-더라’를 사용하여 군대 하기 전에 했던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예에서는 단지 대조적인 사실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실망 등의 감정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배경이 되는 ‘-거든’에 이어 나타나는 ‘-더라’가 화자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다음의 예를 보자.

(19) 독백\_이상형 (33-38)

- 1 예전엔 저도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 2 그래서,
- 3 뭐~ 그런 스타일을 찾고?
- 4 음~ 만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 5 항상,
- 6 <pause 2.2>
- 7 <laughing>없더라구요.</laughing>

(19)의 예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상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거든’과 ‘-더라’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더라’에 담겨 있는 화자의 허탈함 등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예를 보자.

(20) 독백\_취업2 (200-207)

- 1 난 XX화재보단 많이 줄 줄 알았거든?
- 2 그래두 업계 일원데,
- 3 근데 또 삼 만원이야.
- 4 XX화재는::,
- 5 이렇게 음료수두 막 줬거든?
- 6 근데 <laughing>거기는</laughing>
- 7 생수밖에 안 줘.
- 8 아~ 좀 짜더라구,

(20)에서 화자는 업계 1위인 업체에서 취업 인터뷰를 하면서 XX화재보다 좀 더 많은 면접비를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마지막에 ‘아~좀 짜더라구’라고 표현하고 있다.

#### 4.1.2. 배경-결과

‘-거든’ --> ‘-더라’의 순서가 앞의 예들처럼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도 있지만, 대조의 의미가 없이 ‘-거든’의 정보가 배경 혹은 전제 정보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더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가 (22)에 나와 있다.

(21) 독백\_대학교 (433-440)

- 1 그~ 고 이때 했던 토론 대회 끝나고,
- 2 후기로 비무장 지대 답사 이런걸 갔었거든요?
- 3 근데 비무장 지대 답사기를 제가 이렇게 짜:: 썼어요.
- 4 그 때 후기처럼,
- 5 되게 길어요 한 에이 포 용지 네 장 다섯 장 돼요.
- 6 짜 <trunc>썼</trunc>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이롭게 있어요.=
- 7 =써서 그걸 출품을 했더니 그게 당선이 됐더라구

(21)에서 화자는 답사에 갔다가 썼던 글이 당선된 사실을 ‘-거든’과 ‘-더라’의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 답사라는 배경이 되는 사건을 ‘-거든’으로 나타내고, 그 때 상을 받은 사건을 ‘-더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더라’의 결과가 의외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22)-(24)의 예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다.

(22) 독백\_군대 (749-756)

- 1 근데 내가 전화 하고 나온 다음에,
- 2 개가 전화,
- 3 개가 전화를 했거든.
- 4 근데 걸어오다가 뒤를 보니까,
- 5 개가 기관병한테 잡혀 가지구,
- 6 머리 끄맹이 잡혀 가지구,
- 7 끌려 가더라구,
- 8 타이밍도 죽였지.

(23) 일상\_전화1 (61-69)

- 1 A: 아니 가니까:: 내가 늦게 갔거든::,
- 2 B: 어,
- 3 A: 도착 하니까 여덟 시 반 쯤 안 됐거든,
- 4 사람들은::, 일곱 시에 모여서, 배고프잖아,
- 5 짬닭집 가서, 먹구::,
- 6 내 꺼 조금 남겨 놔더라구?

## (24) 독백\_대학교 (186-193)

- 1 그랬으니까 근데,
- 2 관악이 되게 이케 강패 학교였거든요?
- 3 지금은 남녀 공학이 돼서 좀 좋아 졌는데,
- 4 엄마가 죽어도 나를 관악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 5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래서 여의도를 가라:;
- 6 어떻게 하나,
- 7 이전 위장 전입을 하자,
- 8 나도 모르게 위장 전입을 해 봤더라구요?

(22)의 예에서 화자는 군대에서 자신의 바로 뒤에 전화를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관병한테 끌려간 일을 회상하고 있다. (23)에서 화자는 약속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거든’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더라’로 보여 주고 있다. (24)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특정 학교를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을 ‘-거든’ -> ‘-더라’의 순서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역시 ‘-더라’에는 놀라움의 요소가 있어서 사건을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거든’과 ‘-더라’가 각각 배경과 결과를 나타내는 위의 경우와 달리, ‘-거든’이 통상적인(혹은 일반적인) 전제/배경이 되는 사실을 나타내고, 후행의 ‘-더라’는 그 패턴을 따르는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의 예가 하나 있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5) 일상\_전화2 (374-388)

- 1 A: 그래서 그냥 실험실서 알게 된 오빠데,
- 2 근데,
- 3 그 오빠는 영업 해:;
- 4 B: <trunc>영</trunc> 아 세일즈?
- 5 A: 어.
- 6 되게 자주 돌아다니잖아:;
- 7 B: 어.
- 8 A: 근간,
- 9 뭐::~,
- 10 하여튼,
- 11 이 근처에 오면 연락하거든?
- 12 B: 음,
- 13 A: 근데 오늘,



- 14 짐심 좀 전에,  
→ 15 연락이 왔더라구요?

(25)에서 화자는 아는 오빠가 오늘 연락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실 즉, 일반적으로 그 오빠가 근처에 오면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거든’으로 나타내고 있다.

‘-더라’가 어떤 전제 또는 배경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 결과에 따른 화자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었다. (26)의 예를 보자.

(26) 독백\_교환학생 (46-49)

- 1 근까 그::~~ 홈 스테이 같은 게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2 근데 그 때가 근까 십이월 말이라서 이제,  
→ 3 크리스마스 휴가 때는 사람들이 안 받거든요 학생들을,  
→ 4 근까 뭐~ <laughing>잖더니</laughing> 이제 쫘 막막하더라구요,

(26)에서 화자는 교환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도착했는데,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라 숙소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 때 막막했던 심정을 ‘-더라’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두 예도 마찬가지이다.

(27) 독백\_결혼 (285-287)

- 1 창경원에서 케이블카 탔는데,  
→ 2 둘 만 딱 탔거든요.  
→ 3 그 때 기분이 멋쩍더라구요.

(28) 독백\_교환학생 (126-132)

- 1 근까 최소한::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인사 하이라고 해  
2 줘야 되는데::,  
3 딱 보자마자 내가 뭐라고 딱 한 마디 했는데,  
4 되게 막 경멸하는 투로 이케 왓 이려는 거예요,  
5 근까 영어에서 이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 6 보통 왓이라고 하면 되게 그니까 좀 이케 불공한 거거든요,  
7 그니까 보통 익스큐즈미나 아니면 뭐~ 팔든 이렇게 얘기해야지,  
→ 8 왓은 되게 기분 나쁘더라구요,

(27)의 예에서 화자는 결혼 상대자를 처음 만나 케이블카에 두 사람만

났을 때의 멋쩍었던 상황을 배경(‘-거든’) → 화자의 내적 상태(‘-더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28)에서는 영어에서 ‘왓?(what?)’이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는 배경 정보를 ‘-거든’을 사용하여 표지하고, 그것을 실제 들었을 때의 기분을 ‘-더라’로 표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든’ -> ‘-더라’의 전개를 정리하면, ‘-거든’은 대체로 배경이나 전제가 되는 정보를 표지하며, 뒤따르는 ‘-더라’는 그에 따른 결과 혹은 화자의 내적 상황을 담고 있거나 ‘-거든’의 배경과 상반되는 결과 혹은 화자의 내적 상태를 담고 있었다.

## 4.2. ‘-더라’ -> ‘-거든’

이제 ‘-더라’가 먼저 쓰이고 ‘-거든’이 후행 담화에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더라’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뒤따르는 ‘-거든’은 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 혹은 증거/이유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더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도 의외성을 지닌 경우가 많은 듯하다. 또한, 뒤에 따르는 ‘-거든’은 ‘-더라’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증거 제시를 하는 경우와 상반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일단 (29)-(30)의 예는 ‘-거든’이 선행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또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 (29) 일상\_식사중회사원3인 (453-458)

- 1 A: 근데 언니 XX 카드 언니 너무 좋더라.
- 2 어제 할인 받은 게 칠만 원 넘게 할인 받았거든?
- 3 십 프로 하나까.
- 4 너무 좋지 언니.
- 5 B: 십 프로?
- 6 A: 어.

### (30)

- 1 A: 재밌긴 되게 힘들드라.
- 2 B: [어::.]
- 3 A: [동의서도]다 받아야 되구 사람들 구비문학은 재밌잖
- 4 아::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 근데 이거는,
- 5 일상 대화를 녹음을 해야 되니까,
- 6 이케 모르는 사람한테 <trunc>해</trunc> 했다가 기분
- 7 나빠하는 사람 되게 많구,

8 B: [그래 맞아.]

9 A: [그치.]

→ 10 동의서도 잘 안 써 주구 이거 동의서 다 받아야 되거든.

(29)의 예에서 화자는 XX 카드가 좋다는 것을 ‘-더라’를 사용하여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가 되는 실제적인 예를 ‘-거든’을 사용하여 뒤에 붙이고 있다. (30)의 예에서도 화자 A는 일이 재미있기는커녕 힘든 경험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거든’을 사용하여 다시 입증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일상\_삼십대 (476-487)

→ 1 A: 근데 진짜 허무하더라.

2 나는 진짜 준비기간이 되게 짧았잖아:.

3 진짜.

4 딱 한 달 전 한 달 전에 딱 사실 식 준비만 한 거니까.

5 그런 거지만 그래도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가 많았다,

→ 6 회사 다니면서 준비 할러니까 진짜 힘들더라,

7 B: 그럼.

8 C: 힘들지.

9 A: 내가 전날까지 일했잖아:.,

10 어휴 우리 과장이 줌,

11 줌 아니야.

→ 12 되게 간간한 간간한 스타일에 여자거든,

(31)에서 화자는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힘들었던 상황을 ‘-더라’를 사용하여 ‘허무하더라’, ‘힘들더라’라고 자신의 그 당시 내적 상태를 표지하고, 그 이유로 간간했던 직장 상사를 언급하면서 ‘-거든’을 사용하고 있다.

앞의 (29)-(31)의 예들은 ‘-거든’이 앞에 나오는 ‘-더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제시하는 경우이지만, ‘-거든’이 상반되는 이유를 대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의 (32)를 살펴보자.

(32)

1 A: 그러더니: 몰라 점수 나왔을 때 그냥 우리 오빠는 교대

→ 2 간다구 그러드라,

3 꽤 괜찮은 점수였는데,

- 4 응:: 남자는 교대가 여자보다 낮거덩,
- 5 교대 간다 그러고 초등학교 선생님 된다고 갔어,
- 6 가더니 쪽 그냥 그냥 별로 별 생각없이,
- 7 그냥 군대 갔다와서 이케 다니다라구,
- 8 근데 우리 오빠가 대학가서 공부를 안 하더라구,

(32)에서 화자는 오빠의 대학시절을 ‘-더라’를 사용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빠가 점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에 간 것이 의외였던 이유를 ‘-거든’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 (33)도 역시 같은 경우이다.

(33) 일상\_대학생놀이문화 (2496-2502)

- 1 A: 그런 건 없는데,
- 2 국가유공자니까 빠질 수 있는데,
- 3 아빠가 또 가는 쪽으로 생각하더라구요.
- 4 B: 애네 아버지가 또 그런 게 있더라구.
- 5 C: 음::
- 6 A: 근까 아빠가 빨려면 백프로 빨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국가 유공자 자녀는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33)에서 화자 A는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군대를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생각이 의외인 이유로 ‘-거든’을 사용하여 국가 유공자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 (3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4) 독백\_교환학생 (229-238)

- 1 같은 학부 수업인데두 정말 너무 많이 시키더라구요,
- 2 여기보다 최소한 일 점 오 배는 더 시킬 거예요,
- 3 공부를 애들 근까 되게 열심히 하구,
- 4 책도 정말 많이 읽히구,
- 5 거의 일주일애 책을 근까 애들이 다 읽진 않아요,
- 6 거기 근까 하라는 대로 다 읽진 않는데,
- 7 최소한 명목상으로 나와 있는 거로는 우리는 뭐~ 한 챕터 그거밖
- 8 에 안 되거든요 좀 널널한 수업 같은 경우는,
- 9 한 챕터 같으면 뭐~ 거기 (.) 는 같은 경우는,
- 10 책 반 권을 읽혀요 거의,

11 두꺼운 책의 한 반 권을 일 주일 만에 다 읽히는 거예요.

(34)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수업량을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업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더라’로 표지하고, 이를 한국의 수업량과 비교함으로써 극대화시키고 있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의 수업량을 ‘-거든’으로 표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라’ -> ‘-거든’의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서 후행의 ‘-거든’이 앞에 나오는 ‘-더라’에 대한 원인 혹은 이유를 제시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다음의 (35)의 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35) 독백\_교환학생 (338-341)

- 1 그리구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 2 =근까 제가 있으면서 다른 국제 학생들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정
- 3 말 온갖,
- 4 근까 세계 주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 한 번씩 만나봤는데 참
- 5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구요,
- 6 그래서 참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35)에서 화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의 다양함을 ‘-더라’를 사용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거든’이 그 이유가 아닌 결과적인 화자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 흥미롭다.

##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어말어미인 ‘-거든’과 ‘-더라’가 실제 구어 대화문과 내러티브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거든’과 ‘-더라’는 대화문과 내러티브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화문에서도 화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단일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 전개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둘째, ‘-거든’이 먼저 전제 혹은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후행의 ‘-더라’가 그 결과 혹은 화자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전개방식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 후행의 ‘-더라’는 선행의 ‘-거든’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반된 정보나 의외성을 지닌 결과를 표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더라’가 발화 이전에 새롭게 인지된 정보를 표시한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파생한 것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더라’가 먼저 화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지하고 후행하는 ‘-거든’이 그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원인/이유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라’ 자체의 정보가 의외성을 지닌 경우에는 ‘-거든’이 그 의외성을 설명하게 되므로 서로 상반된 정보를 담게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Labov and Waletzky(1966), Labov(1972)의 내러티브의 구조에 적용시켜 보면 좀 더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듯하다.<sup>8)</sup> Labov and Waletzky(1966)와 Labov(1972)에 따르면, 잘 짜여진 내러티브는 (1) 개요(abstract), (2) 도입(orientation), (3) 갈등행위(complicating actions), (4) 평가(evaluation), (5) 결과 또는 해결(result or resolution), (6) 종결(coda)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지금까지 논의한 ‘-거든’과 ‘-더라’의 기능과 대비해 보면, ‘-거든’은 내러티브에서 청자에게 이야기 속의 인물(person), 장소(place), 시간(time), 행동상황(behavioral situation)을 소개하는 이야기의 배경(setting)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더라’는 내러티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평가(evaluation) 혹은 청자에게 갈등 행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려 주고 일련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결과 또는 해결(result or resolution)의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와 맞물린 ‘-거든’과 ‘-더라’의 설명은 지금까지 논의한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듯하다. 첫째, 내러티브 구조 설명은 ‘-거든’과 ‘-더라’가 대부분 화자 간이 아닌 단일 화자에 의해 발화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듯하다. 단일 화자가 자신의 내러티브에 이들 어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더라’의 과거 직접 경험 혹은 화자의 심리 묘사라는 기본 의미는 내러티브의 결과 혹은 평가의 구조와 잘 맞는 듯하다. 또한, ‘-더라’의 의미에 덧붙여지는 놀라움 혹은 의외성의 요소는 이야기의 tellibility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위의 예들에서 ‘-거든’은 ‘-더라’의 선행 혹은 후행 담화에서 이야기의 배경 혹은 전제 이유 등을 제시한다고 하였는데, 내러티브 구조 설명이 이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즉, 대부분 ‘-거든’이 먼저 일어나면서 그 이야기의 배경을 제시하거나, ‘-더라’의 후행 담화에서 그 이유나 배경을 제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거든’과 ‘-더라’가 한 번씩 일어나는 예들만을 제시하였지만, 두 어미가 서로 교차하며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예 (36)을 살펴보자. 여기서 화자는 나이가 든 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8) 본 제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임을 밝힌다.

과 달리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는 남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36) 독백\_사랑이야기#2 (296-309)

- 1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나이에 대학원 간다고 하면:: 다들 말리거든
- 2 =지금 가서 무슨 공부를 하나,
- 3 빨리 돈을 벌어서,
- 4 시집을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 5 오빠도 자기도 물론 늦은 공부를 <laughing>하니까,</laughing>
- 6 동병상련이 있었는지 아무튼,
- 7 되게 잘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 근데,
- 8 <unclear>그</unclear> 여태까지 계속 그까 나두 내 스스로의
- 9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 10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 근까 다들, 인제,
- 11 일단 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일단 좋은데,
- 12 그래서<unclear> 아휴,
- 13 앞으로가 걱정이 되니까 걱정::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었어.

(37)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곱 번째 줄에 쓰인 ‘-더라’에 나타나 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것을 말리는 상황을 ‘-거든’으로 표지하여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남자는 오히려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는 것을 ‘-더라’로 표지하고 있다. 이것이 화자에게 힘이 되었던 이유를 후행의 ‘-거든’을 사용하여 다시 부가적으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영근. 1976. 현대 국어의 문체법. 어학 연구 12:1.  
 \_\_\_\_\_. 1976/1989. 현대 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고창운. 1995. 서술씨끝의 문법과 의미. 박이정.  
 구현정, 이성하. 2001.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8:1, 1-19.  
 권재일. 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영희. 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국어학 10, 37-80.  
 김정대. 1983. {요} 청자 존대법에 대하여. 가라문화 2.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45-116.  
 나진석. 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56, 태학사.  
 \_\_\_\_\_. 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국어연구 152.

- 서상규, 구현정. 2005. 한국어 구어 연구 2. 대학생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1, 97-125.
- \_\_\_\_\_. 1996. 수정증보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서태룡. 1988.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신지연. 2000. 어말어미 '-거든'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8, 251-270.
- 신현숙. 1980. /-더라/의 쓰임과 의미.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 11.
- \_\_\_\_\_. 1986.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 이중철. 2004. 어말어미 '-거든'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271-290.
- 이혜영. 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효상. 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207-250.
- 임홍빈. 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 12, 433-475. (국어문법의 심층 1: 문장 범주와 굴절, 339-376에 재수록)
- 장경현. 2010.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역락.
- 장경희. 1985. 현대 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채영희. 1998. 담화에 쓰이는 '-거든'의 화용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3, 159-177.
- 최동주. 1996. 선어말 어미 -더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19, 375-409.
- \_\_\_\_\_. 1994.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 1937. 우리 말본. 정음사.
- 타이라, 카오리. 2006. 구어체 '-거든'에 관한 일고찰: 시나리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어학 31, 365-391.
- 한 길. 1991. 국어 종결 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 편. 2008. 표준국어대사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2000. 연세 한국어사전.
- Anderson, John. 1983.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 261-295.
- Bock, Cathryn. 1986. Syntactic persistence in language production. Cognitive Psychology 18, 355-387.
- DeLancey, Scott. 2001.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2, 369 - 82.
- Kamio, Akio. 1995. Territory of information in English and Japanese and psychological utterances. Journal of Pragmatics 24, 235-264.
- \_\_\_\_\_. 1997. Territory of Information. Amsterdam & New York: John Benjamins.
- Labov, William. 1972. Language in the inner city. Philadelphia: Univ. Pennsylvania Press.
- \_\_\_\_\_. and Joshua Waletzky. 1967. Narrative analysis: oral versions of personal experience. Essays on the verbal and visual arts, ed. by J. Helm, 12-44. Seattl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 Lee, Hyo Sang. 1993. Cognitive constraints on expressing newly perceived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epistemic modal suffixes in Korean. Cognitive Linguistics 4:2, 135-167.
- Levelt, Willem and Stephanie Kelter. 1982. Surface form and memory in question



- answering. *Cognitive Psychology* 14, 78-106.
- Slobin, Dan I. and Ayhan A. Aksu. 1982. Tense, aspect, modality, and more in Turkish evidentials.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ed. by Paul Hopper, 185-200. Amsterdam: John Benjamins.
- Song, Jae-Mog. 2002. A typological analysis of the Korean evidential marker ‘-te-’. *Eoneohag* 32, 147-164.
- Strauss, Susan. 2005. Cognitive realization markers in Korean: a discourse- pragmatic study of the sentence-ending particles -kwun, -ney, and -tela. *Language Sciences* 27, 437-480.
- Weiner, E.J. and William Labov. 1983. Constraints on the agentless passive. *Journal of Linguistics* 19, 29-58.

김명희

한양대학교(ERICA) 국제문화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화번호: (031) 400-5342  
E-mail: mkim@hanyang.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 완료되어  
2013년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3년 4월 10일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